서울 성동구 성수동

정재엽 '수제 장인 원목가구'로 틈새시장 공략



실용주의 가구 디자이너로 유명한 덴마크의 건축학자·가구 디자이너인 카레클린트(KAARE KLINT)의 이름을 따온 국내 수제작 원목가구 브랜드 '카레클린트'는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동기인 정재엽, 탁의성, 안오준 등 세 명이 유통마진을 줄이고 합리적 가격으로 좋은 가구를 공급하고자 2010년 설립했다.

브랜드 론칭 후 감각적인 디자인과 남다른 브랜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 가구를 협찬해 인지도가 높아졌다.

2012년에는 퍼니처 카페 사업 부문인 카레클린트 퍼니처를 통해 가구 브랜드 최초로 본격 퍼니처 카페 '카레클린트 더카페' 홍대점을 열고 퍼니처 카페 문화를 선도했다.

오프라인에서 가구를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으며 가구 쇼룸과 카페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으로 인기



를 모았다. 점차 매장을 늘려갔지만 나중에는 수익 악화로 축소해 현재 분당용인점 1곳만 운영 중이다.

과거 카레클린트의 공동대표였던 정재엽 전 대표는 성일고를 나와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를 졸업했다.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고시원에 콕 박혀 토익과 면접을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낙담했고 광고회사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뒤에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다 졸업을 앞두고 같은 과 동기가 던진 "우리도 사업이나 해 볼까?"라는 한마디가 불현듯 떠올라 탁의성, 안오준 씨와 함께 공동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각자 3평 남짓한 고시원에 방을 잡고 "전공을 살려 좋아하는 걸 하자"며 '창업 합숙'에 돌입해 고민을 시작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가구 디자인 밖에 없던 세 명의 친구들은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모았다.

무작정 114에 전화를 걸어 가구 제조 공장을 알아봤다. 한 가구 공장 사장을 만나 샘플비 1000만 원을 건네고 샘플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도안과 다르게 못이 이곳저곳 박혔고 흔들리는 등 품질이 안 좋았다. 계약을 포기하고 이후 30년 목수 경력의 '가구 장인'을 만나 희망을 찾아 협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카레클린트 홈페이지를 제작 후 가구 만드는 과정을 블로그에 공개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으며 품질의 신뢰를 주기 위해 쇼품과 카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레클린트 더카페를 업계 최초로 시도해 새로움을 추구하며 창업 7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카레클린트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제45회 KIDP 공모전 수상,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가구부문 수상하며 꾸준히 사랑받는 국내 수제작 원목가구 브랜드로 거듭났다.

정 전 대표는 3인방의 다사다난 창업스토리를 담은 'CEO가 된 녀석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맨땅에 헤딩하며 습득한 가장 날 것의 창업 이야기와 가구 디자인부터 제작, 물류,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그들만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창업스토리와 전략을 담았다.

'어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는가'부터 '돈 한 푼 없을 때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멋있고 폼 나진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창업 스토리를 엿볼 수 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까지 창업에 관련한 많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3인의 대표가 이야기하는 형식이다.

한편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는 정재엽 전 대표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올해 초 카레클린트 공동대표에서 사임한 정 전 대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S아파트(사진) 한 호실을 2017년 5월 아내 심 씨와 공동명의로 9억 원에 매입했다. 그는 2014년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회사 글래드웍스 대표를 맡고있는 심지영 씨와 결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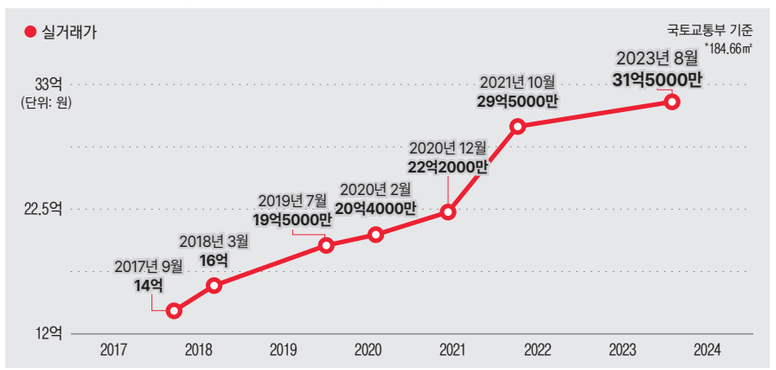
공급면적 117.9㎡(약 35.66평), 전용면적 84.78㎡(약 25.64평) 규모다. 지난해 5월 같은 면적이 23억4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2009년 6월 준공했으며 총 445가구다. 서울숲과 이마트, 여러 초·중·고교 등이 근처에 있어 교육·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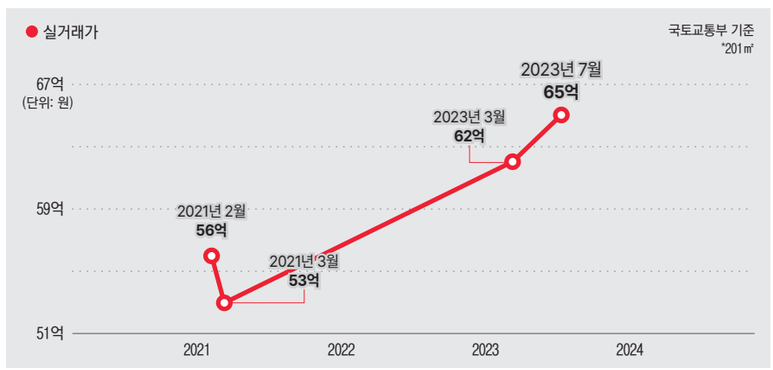
카레클린트 가구를 배치해 꾸민 이 집은 2018년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메종코리아'에 소개된 바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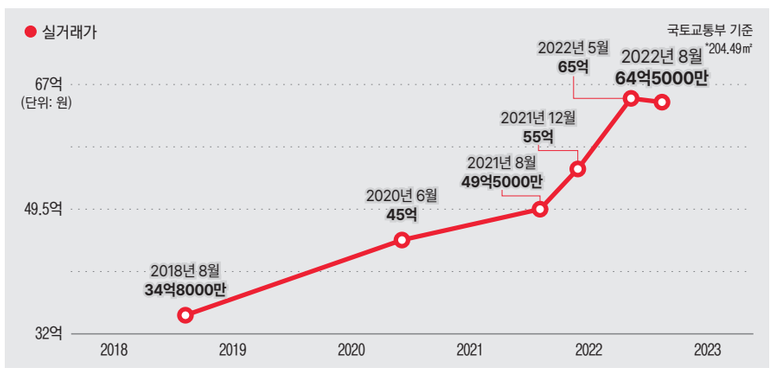
서울숲힐스테이트(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서울 성동구 성수동)



남궁민 현)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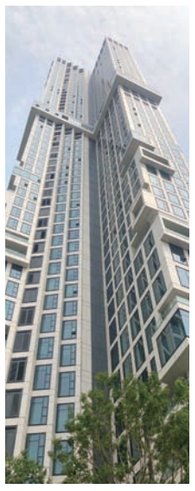
남궁민은 2001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조연으로 나선 후 영화 '나쁜남자' '비열한 거리' '뷰티풀 선데이' 등에서 주·조연급 연기자로 도약했다. 이후 '대박가족' '장미울타리' '금쪽같은 내새끼' '어느 멋진 날' '부자의 탄생' '구암 허준' '로맨스가 필요해' '냄새를 보는 소녀' '리멤버-아들의 전쟁' '스토브리그'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장밋빛 인생'으로 KBS 연기대상 인기상, 2015년 '냄새를 보는 소녀'로 S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부문 남자특별연기상, 2016년 '미녀 공심이'로 SBS 연기대상 로맨틱 코미디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 2017년 '김과장'으로 KBS 연기대상 남자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2020년 드라마 '스토브리그'로 SBS 연기대상에서 첫 대상을 거머쥐었고 이듬해 '검은태양'으로 MBC 연기대상 대상으로 2년 연속 대상을 탔다. 현재 MBC 드라마 '연인'에서 이장현 역으로 열연 중이다.



방주득 현)덕산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방주득 덕산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대구공고 건축과 졸업 후 1972년 태광산업에 입사해 방적과 기모 기술을 배웠다. 이후 태광산업, 영진파일을 거쳐 1987년 덕산실업(현 덕산엔터프라이즈)를 창업하며 섬유기업 외길을 걷고 있다. 덕산실업에서 덕산엔터프라이즈로 상호를 변경한 후 노스페이스, 나이키, K2 등 유명 아웃도어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며 성장했다. 2015년 11월 동일방직의 설립자이자 초대사장인 고(故) 정헌 서정익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재단법인 정헌재단은 방 대표에게 기술부문 정헌섬유산업상을 수여했다. 그는 국내 최초로 방적사를 이용한 폴라플리스 제품을 개발해 수출시장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 1994년 제31회 무역의 날 상공부장관상 수상, 2012년 제26회 섬유의 날 산업포장, 2013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대상 등이 있다.



김용순 현)신성반도체 대표이사



김용순 신성반도체 대표이사는 1994년 창업주인 남편 신만섭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창업 초기부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해온 덕분에 경영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혼자서 이끌었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쉽지 않았지만 막중한 책임감으로 해냈다"고 회고했다. 이후 특유의 뚝심과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키코(KIKO)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어려움을 버텨냈다. 잘 극복한 후 2007년 아들 신재근 대표가 취임해 함께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신성반도체는 1984년 설립돼 액정 패널, 메모리, 시스템LSI, 반도체 소자 등 반도체 부품, 정보기기 등의 무역, 도매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 무역의날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하고 2012년에는 무역의 날 1억 달러 수출탑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신내역 등 3곳 1451가구 공급

서울특별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시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소 중 3곳이 첫 통합심의를 통과해 2029년 공공주택 145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수도권 전철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있는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으로 서울 시내에 선정됐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이 심의를 통과했다.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도시철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 3곳은 충분한 녹지(조경) 확보·우수디자인 적용·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서울 시내에 선정됐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연신내역 · 쌍문역 동측 · 방학역)이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26~46㎡·3인 가구를 위한 59㎡·4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84㎡와 105㎡까지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면이 구성됐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도록 디자인했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도 적용했다.

특히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인근 대상지는 주요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조성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3호선 연신내역 복합사업 계획은 용적률 650% 이하·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392가구가 공급되며 개방형 휴게공간·은평푸드뱅크마켓 등 지역 공공서비스 시설이 함께 확보된다.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 계획에는 용적률 500% 이하·지하 4층~지상 39층 높이 공공주택 639가구가 들어서며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당초 대비 492.1㎡ 확대해 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1호선 방학역 인근 대상지에는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공주택 420가구(공공분양 263가구·이익공유 84가구·공공임대 73가구)와 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가구를 위한 '복층형 세대'를 일부 계획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평면을 제공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무량판 공법 아파트 13곳 '이상 없음'



충남 천안시가 무량판 공법으로 지은 민간아파트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충남 천안시

천안시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아파트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부터 공사 중인 무량판구조 아파트 5곳과 준공된 아파트 8곳 등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은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입회하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했으며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트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동주택 건설 초기 단계부터 구조 검토를 강화하고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